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eb 성북

성북문화재단

행동조합 문화연앙기

성북축제집결네트워크공동체

PROGRAM

18:30~19:00	참가자 등록 [사회] 오창민
19:00~19:15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활동 보고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19:15~19:30	[발제1] 공유와 지역연대를 통한 마을잔치 ‘와글와글과 꿈나르샤 축제’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19:30-19:45	[발제2]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 ‘정릉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 양지순 협동조합 성북신나
19:45-20:00	휴식
20:00-21:00	[토론] 축제토크쇼 정릉버들잎축제 _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MP 정릉더하기축제 _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성북생활문화주간 _전지욱 성북구 생활예술매개자 장위별별걸다해 _박종원 개구장위들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_이민영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무국장

CONTENTS

☐ 시작)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활동보고-----9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 발제 1)

공유와 지역연대를 통한 마을잔치 '와글와글과 꿈나르샤 축제'---15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 발제 2)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 '정릉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39

양지순 협동조합 성북신나

☐ 토론- 축제토크쇼-----43

정릉버들잎축제 _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MP

정릉더하기축제 _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성북생활문화주간 _전지욱 성북구 생활예술매개자

장위별별걸다해 _박종원 개구장위들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_이민영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무국장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시작]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활동보고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발제1]

공유와 지역연대를 통한 마을잔치 '와글와글과 꿈나르샤 축제'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발제2]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 '정릉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

양지순 협동조합 성북신나

시작

성북 축제협력네트워크 ‘축협’

김지희

협동조합 문화변압기 이사장/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사업단장

1. 준비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이하 ‘축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에서의 문화예술을 기반한 거버넌스 네트워크인 공유성북원탁회의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모임, 단체)들 사이의 호혜와 우정의 관계망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생태계의 공존 및 협력을 위해 더불어 활동하는 커뮤니티’다. 2014년 4명의 제안을 통해 생긴 이래 현재 300여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초창기부터 크게 4개의 운영원리를 세운 바 있는데 자율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자율성, 문화다양성을 추구하는 다양성, 우정과 협력을 상징하는 연대성,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거버넌스 활동을 의미하는 민주성이 그것이다.

연도	주요활동
2014	초동모임 구성 공탁 구성을 위한 워크숍 관계형성 네트워크파티 성북문화재단과 협력체계 구축
2015	운영위원회 구성 주요활동 의제별 워킹그룹 구성 월 1회 전체모임 진행 협치형 축제 시범 운영
2016	운영위원 활동 촉진을 위한 팀 구성 거버넌스 중심의 지역축제 재편 주요 의제 그룹의 협동조합 전환

2017	지역중심 예술마을만들기 워킹그룹 본격화 예술마을만들기 워크숍 통한 활동체계구축 지역축제 거버넌스 논의 시작, 축제포럼 통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 제시
2018	예술마을만들기연석회의를 통한 활동체계 운영 지역축제라운드테이블 통한 일상네트워크 구축 지방선거 대응 등 지역 기반 정책 의제 생성
2019	활동 내실화 전체모임 강화를 통한 관계형성 네트워크파티 복원

표 1. 연도별 공유성복원탁회의 주요 활동

초기년도에는 자발성에 기반하여 수많은 문화예술 관심자들이 모여 서로의 통성명을 하는 관계 형성의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은 생각 외로 1년여가 소요되었으며, 실제 네트워크 내 소규모 워킹그룹이나 모임이 생길 때도 그룹 간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그룹이 생긴 시점으로부터 약 1년간 구성원들 간의 ‘친구 될 준비’, ‘함께 놀 준비’를 하는데 투자한다.

2015년부터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단위축제의 민관협력체계를 실험하면서 2016년 예술가의 동축제 MP 파견에 이르기까지 그 수가 확대되어왔다.

과정에서 지역축제 경험이 축적되면서 더 이상 단위가 아닌 소통의 플랫폼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2017년 성북 지역축제 거버넌스포럼을 통해 지역축제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모색하는 동시에 거버넌스 축제 운영을 위한 축제 관심자 네트워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를 통해 2018년 초 드디어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 모임이 시작되었다.

2. 축협의 논의 기반

성북지역은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 성북진경, 정릉 버들잎 축제, 장위부마축제 등 다년간 민관 간 협치 활동을 기반으로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민민 협력 축제를 비롯하여 마을장터 역시 각각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 또는 시작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거버넌스 축제 운영 노하우가 축적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상황을 토대로 지역축제는 주민 주도를 통한 시민 문화권리 증진에 주요한 매개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다. 2016년 발표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 기본계획 2020’에도

기본계획의 실행과제 중 하나로 ‘성북구 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언급된 바 있으며, 2018년 공유성북원탁회의의 민선7기 성북구의 문화정책 제안에서도 ‘축제의 일상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기반 마련’의 항목이 포함되었다.

성북축제협력네트워크가 생기게 된 가장 직접적인 계기였던 제1회 성북 지역축제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지역축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언급되었다. 크게 지역축제가 가져야 할 속성과 지역사회의 통합지원책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자로는 마을단위 소규모 공동체 축제 활성화로 축제 생태계 확대 및 팬덤 확대로 지속성 강화의 부분으로 지역축제의 지향점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후자로는 축제 간 네트워크 강화로 문화 생태계 구성, 도시축제 플랫폼 구현으로 자생적 축제 문화 생성, 이를 위한 지원체계 및 민관협치체계 로드맵, 동 단위 문화예술지원관 배치, 조례 제정, 전문 인력 양성, 행정 내 통합 협력체계, 축제지원위원회 구성, 축제학교, 공유창고, 공방 설립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울러 다채로운 의견이 개진되었다.

이를 통해 축협은 지역 내 실질적인 인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축제의 체계 합리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지역성과 문화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제 기획과 실행의 내용성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가는 친구 네트워크를 시작점이자 지향점으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3. 축협의 주요 활동

가. 지역축제 상황 공유

2018년 3월 29일 축협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매월 주기적인 모임이 성사되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은 서로의 축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었다. 지역 내 40여개의 축제들은 봄, 가을에 집중되면서 주로 봄과 여름에 축제 실무가 시작되기 직전 서로의 축제에 대한 소개와 토론을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때로는 아이디어를 모으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2018년 초에는 민관협력형 축제에 대해 분임토론을 통해 축제의 현황과 비전을 공유했고, 2019년에는 대표적인 민민협력축제인 정릉더하기축제와 광명 생활문화축제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아이디어 모으기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8,9월 모임에서는 10월 축제 정보에 대한 수집과 공유를 통해 지역 내 축제에 대해 인지해갔다. 해외축제에 대한 경험 역시 공유하면서 어떻게 도시가 지역의 문화자원과 일상의 공간을 축제에 적용하는지 사례를 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축제에 대한 정보 나눔은 자연스럽게 축제 아카이빙에 대한 요구와 마을형 도시 축제에 대한 평가의 척도를 어떤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활동으로도 연계되었다.

나.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모색

기반 조성에서 지역축제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지표가 된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민관협치형 문화예술 기반 축제에 대한 성북지역의 평가가 절상되면서 정작 성북내 축제의 실행을 함께 하는 주체로서 스스로의 축제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 지속가능성을 타진해볼 수 있는 정성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네트워크 시작 초기부터 축제 아카이빙과 축제 평가에 대한 관심은 축제평가에 대한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우리들만의 평가 키워드를 생성하고 이에 따른 질문지를 완성하기도 했다.¹⁾

‘스토리텔링(세계관)’, ‘돈독성(연대, 협력)’, ‘유희성’, ‘의미(유익성)’이라는 다소 엉뚱한 평가 키워드는 축협이 -연구적 관점보다 질적 또는 다소 감성적 효용성을 고려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그라드는 인지의 방향을 가늠하게 한다.

2년차에 접어들면서 축제 간 교류는 상호 간 보유 물품 현황 확인 및 대여, 일회성으로 소모되는 공간 디자인물에 대한 교차 사용, 인적 자원의 발견과 축제 결합 등 보다 실질적인 방식으로 확장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축제자원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창고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019년 초부터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한 축제 공유창고 논의가 가속되면서 은평공유센터 방문 등을 통해 오프라인 창고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온라인 축제공유창고 사이트 구축에도 함께 하고 있다. 축협의 논의와 더불어 협동조합 문화변압기가 개발 중인 축제공유창고 사이트는 사이트 구축을 위한 자원 카테고리 분류 및 정보체계 구성에 이르기까지 세세한 부분에서도 축협에서 함께 논의하고 일부 멤버들이 직접 정리 과정에 결합하였다.²⁾

다. 기반 조성을 위한 주요활동 기획 및 실행

2017년부터 조금씩 논의되어온 축제예비기획자 양성 과정은 2018년에 이르러 성북축제 학교로 현실화되었다. 성북축제학교는 축협에서 콘셉트 검토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축협내 풍부한 축제기획자풀이 멘토로 결합하면서 강의 중심이 아닌 현장 중심의 축제 기획과 실현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러한 기조는 2019년에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축협의 행보 중 가장 뜬금없는 활동이 바로 축제 놀이 개발인데 근 3개월이나 연속으로 진행되었다. 뜬금없어보여도 나름의 맥락을 짚자면 사실 축제는 다양한 긍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때론 담당자의 과도한 업무 집중과 소외가 극대화되기도 한다. 2018년 가을 대부분 축제 담당자들의 신경이 곤두서는 시점에 이르러 네트워크로 모인 목적과 놀이가 결합

1) 축제 아카이빙(http://keystory.net/culture.toransu/fest_archiving.php) 중 해당 평가키워드와 관련 질문을 확인할 수 있다.

2) 축제공유창고 웹사이트 <http://festware.info>

되는 소위 ‘재미있는 것’을 해보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다. 이를 통해 탄생한 ‘축제 기획자 타이쿤’은 카드놀이 방식으로 열린 기획을 즐기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꽤 흥미로운 작업으로 완성되었다. 실제 2019년 축협모임 뿐 아니라 지역대학 연계 수업이나 성북축제 학교에서도 적용되었다.

축협은 기본적으로 축제 관계자들의 수많은 하소연이 오고가는 수다방이고, 길을 찾는 속 답답한 축제담당자들의 모임터다. 개개인에 있어서는 단비일지 신기루일지 알 수 없어 역량 투여를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모임이기도 하다. 게다가 공동의 주제인 축제는 -일상성이 중요하지만- 단기 사업의 형태를 띄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러한 유동성은 사실상 네트워크의 속성을 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축협은 생각보다 적극 참여 구성원들의 욕구에 따라 논의의 내용도, 실행의 정도도 크게 변화한다. 바로 이 부분을 염두에 두며 유연함과 흥미를 갖춘 관계자들의 놀이터이자 공동의 기반 조성지의 확장성을 타진해볼 때다.

공유와 지역연대를 통한 마을잔치
‘와글와글과 꿈나르샤 축제’

이승훈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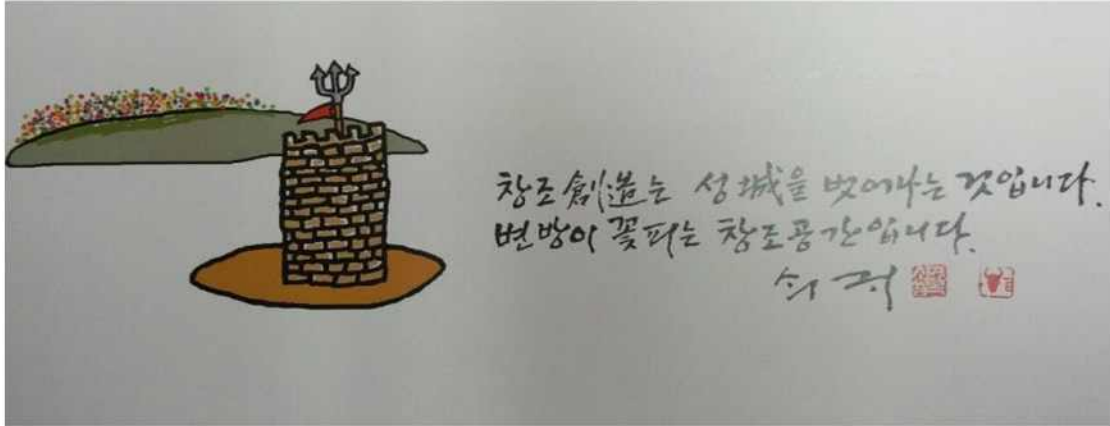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 마을 축제(잔치)
어떻게 준비할까?

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출발하자

창조와 대안의 공간으로서 변방, **마을**



변방(邊防)은
창조(創造)공간(공간)입니다.
2012. 5. 21.
서기적

'나답게 살아도 괜찮아!'

나다음, 다양성, 공동체

마을 만들기 열풍

어떤 마을에 살고 싶으세요?

사회적 자본

신뢰, 소통, 협력

그 핵심은 "신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배태성, 호혜성, 간주관성

사회적 역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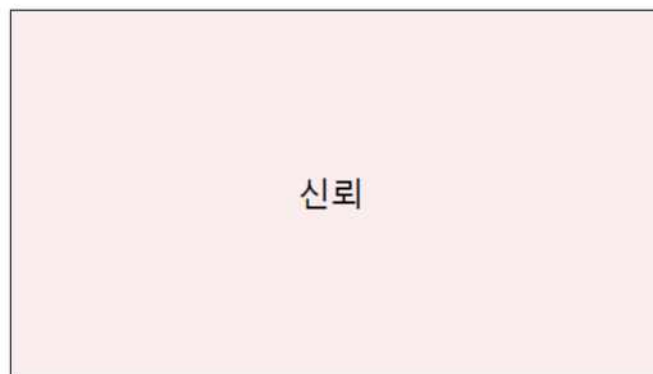
"공동체, 마을"

신뢰+네트워크(일) = 사회적역량

마을 활동의 사분면



마을활동이 잘 되려면?



공릉동꿈마을공동체

- 공릉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체가 모여
-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더불어 살맛 나는 공릉동을 꿈꾸고자
- 2012년 9월 청소년축제 “꿈 나르샤”를 계기로 결성
- 매년 마을 축제와 연대 행사를 함께 기획·진행 중

꿈마을공동체 연간 주요행사



[1월] 마을 걷고 맥국 먹기



[5월] 마을외곽거한이문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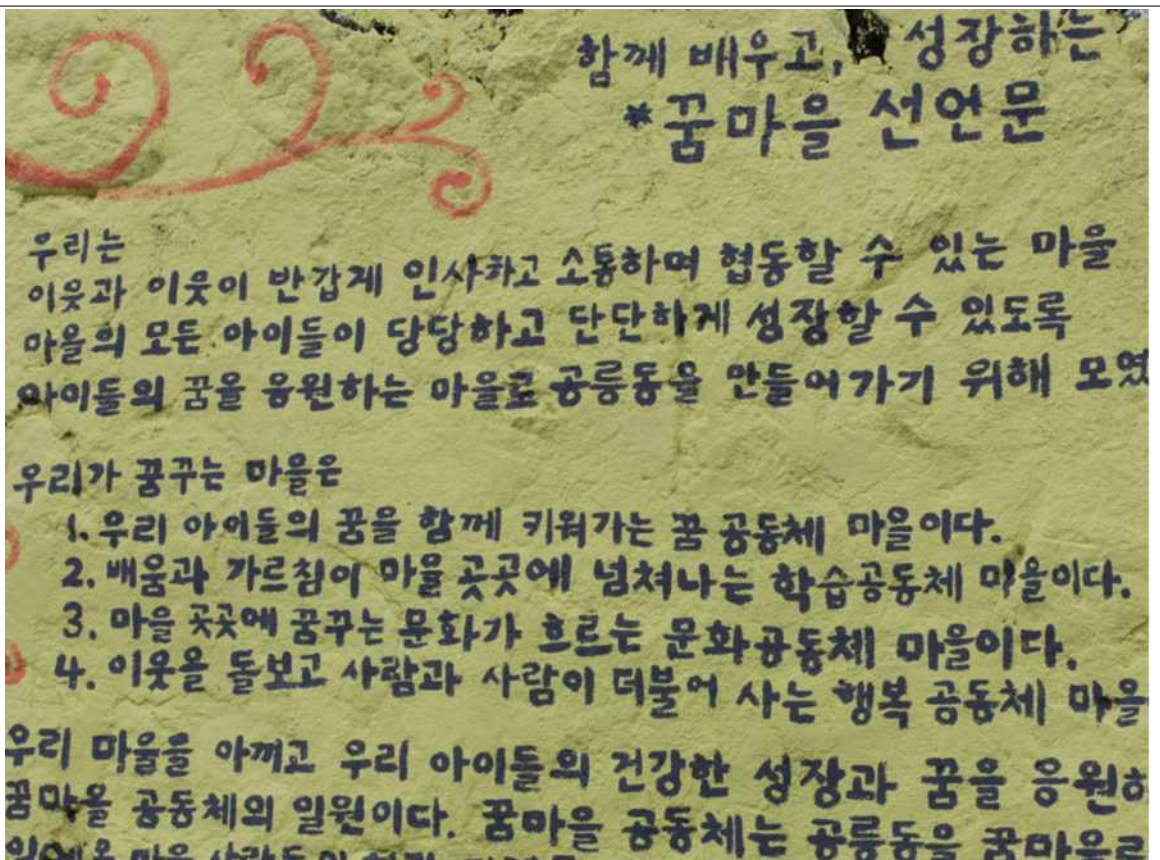
[9월] 청소년축제 꿈나르샤



[10월] 수확잔치



[12월] 공릉동감사의밤



꿈마을 가치와 약속

꿈마을이 지향하는 가치와 약속

- 하나.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 둘.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 셋.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 넷.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 다섯. 공동체 활동에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 여섯.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들에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 일곱. 경쟁을 줄이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 여덟.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휴대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 아홉. 소중한 사람들에 함께 모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춥니다.

9



함께하는 기관·단체·사람 (2016년 기준)

공간이음카페, 공릉1동주민자치센터, 공릉2동주민자치센터, 공릉1동행복발전소, 공릉동꿈마을여행단, 공릉동유치원연합회, 공릉종합사회복지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공릉초등학교학부모회, 공릉중학교학부모회, 공연초등학교학부모회, 극단즐거운사람들, 꿈마을가족기자단, 꿈마을중물패, 노원 FM, 노원문화원, 노원마을공동체지원센터, 노원나눔연대,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다운복지관, 도깨비시장상인회, 도서관일촌, 도시농업네트워크, 돈돈한이웃, 마을과마디, 북카페다락, 사단법인나우온, 아름다운가게노원공릉점, 어린이책시민연대노원지회, 자연주의, 전통공연예술기획예전, 착한바느질, 청소년휴카페꽃다방, 태릉중학교학부모회, 태릉초등학교학부모회, 태릉초등학교학부모회, 한살림북부지부노원지구 등

(35개 단체 500여명)

추진 내용

정기회의 & 지역 현안 공유

월례회의



월 1회 정기회의
둘러앉아 지역 현안 공유
기관/단체별 근황 나눔

정보나눔



SNS 소통
공릉동꿈마을소식지
페이스북 공릉동좋아요

네트워킹



네트워크 구축
연대활동
관심과 응원

추진 내용

마을공동체 연대행사

신년행사



마을 걷고 떡국 먹기
마을소식지 배포
새해인사, 떡국 끓여 먹기

수확여행



공동체 활동 결실과 소감 나눔
타 지역 마을공동체 견학
배움과 휴식

송년행사



공릉동 감사의 밤
한 해를 돌아보며
음식과 이야기 나누기

함께 만드는 축제

와글와글 어린이 큰잔치



함께 만드는 축제

와글와글 어린이 큰잔치

제 4회 꿈마을어린이큰잔치 “와글와글” : 아이가 논다, 마을이 들썩인다!

일시	2016년 5월 21일(토) 11:00~17:00
대상	마을 어린이와 청소년, 공릉동 지역주민
주최	공릉동꿈마을공동체
장소	공릉동근린공원
예산	마을축제후원금 650만원 (주민, 인근상가 후원금 + 전년도 축제수입)
내용	길놀이, 벼룩시장, 체험마당, 언니오빠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움직이는 놀이터, 책놀이터, 보물찾기, 박 터뜨리기 등



마을의 후원 : 온 마을이 돕는 축제



후원금

지역주민, 기관 및 단체, 인근 상점 후원 + 금년 축제 수익금
→ 이듬해 축제 진행 예산으로 사용



후원물품



음료쿠폰, 자전거, 문구류, 상품권, 빵, 수공예품 등
→ 보물찾기와 장기자랑 상품으로 사용



재능기부



재능기부(음향 스태프, 햇빛 가림막 제작, 체험부스, 먹거리부스 운영)
봉사활동(현장스태프, 진행지원, 안전관리)
유치원 아이들 그림, 청소년 동아리 공연 등



홍보도 마을과 함께!

- > 꿈마을공동체 기관 / 단체 배포
- > 지역 학교 공문발송, 방문, 학교 협조
- > 인근 아파트, 상가 방문 (주민, 상인 협조)
- > 주민센터 - 통반장
- > 마을 유치원 방문 홍보
- > 발로 뛰는 거리 홍보



전액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축제이기에 디자인비 절감을 위해 홍보지도 직접 만듭니다.











주최 공평1·2동주민자치위원회
공평동꿈마을공동체
주관 노원구청

제5회 공평동꿈마을공동체

꿈나라사

“복작복작 공평골목일주”
2015년 9월 1일(화) ~ 9월 5일(토)

공평동꿈마을공동체

소개

꿈마을공동체는 공평동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작은 마을공동체입니다. 2012년 마을축제를 계기로 만난 꿈마을공동체 사람들은 다 함께 잘사는 공동체, 더불어 살맛 나는 공동체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을사람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울타리가 낮고 느슨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꿈마을공동체와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매월 열리는 마을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기치와 약속

꿈마을에서는..

1. 마을의 주인은 주민입니다.
2.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3. 누구나 배우고, 성장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4.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5. 공동체 활동에 신나고 재미있게 참여합니다.
6. 돈으로 교환되지 않는 것에도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둡니다.
7. 경쟁을 즐기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8. 일주일에 하루는 컴퓨터, 휴대폰보다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9.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와 음식을 나누기 위해 일을 잠시 멈춥니다.

공평1·2동 마을축제
주최 공평1·2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노원구청

공평동도매시장
공평동 도매바자회
9월 4일(금) 오후 5시에 반양재 상점

공평골목 꿈나라사
9월 1일(화) ~ 9월 5일(토)
주최 공평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노원구청

공평시장
9월 3일(목) 13:00 ~ 15:00
주최 공평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노원구청

청소년마당
9월 5일(토) 11:00 ~ 15:00
주최 공평동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노원구청



☘ 북카페 '다락'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노원구로부터 위탁 받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책과 함께하는 마을사랑방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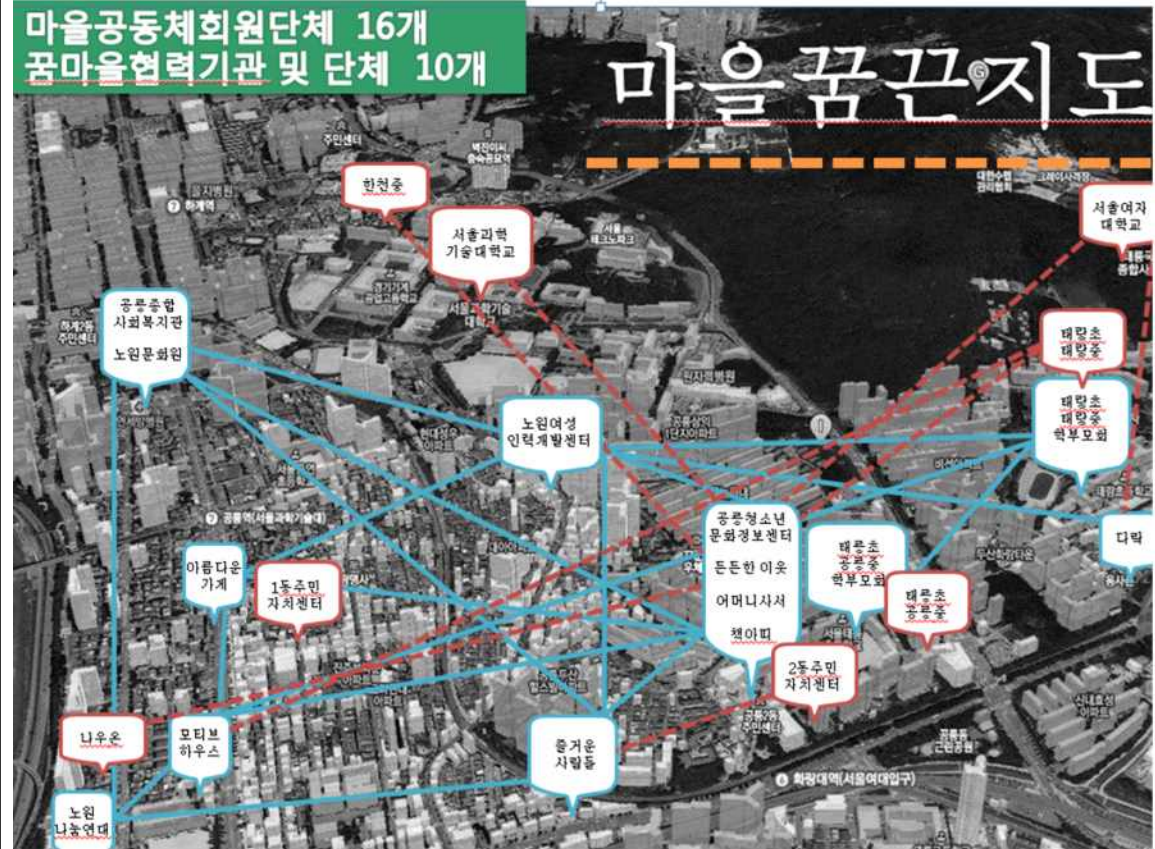
북카페 '다락'은 판매 수익금으로 운영되며, 카페지기 및 프로그램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로 운영됩니다. 다락에서 소모임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대관하실 주민들은 언제든지 들려주세요.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마을공동체회원단체 16개
꿈마을협력기관 및 단체 10개

마을꿈꾸는지도



공동체
공동체

마을유니 남동서초등학교 사파리

제1코스

- 강촌산 (구)원정대역
- 북카페 단애의 봄사온
- 백산골 재래식 농물 체험터
- 생물학교 구공작당 숲재
- 원미마을
- 꽃노포시장
- 공룡전시관 문화정보센터
- 공룡동굴마을 골방
- 공작골(별장) 도당재 드라이브
- 공룡동 도깨비시장

마을의 기억

마을의 기억

마을유니 서사문포초등학교

제2코스

- 토산봉우 전사촌
- 대흥
- 삼흥
- 죽군사면학교 / 죽군역물관
- 삼군부 향토관
- 백운산 신도시
- 살해대학교 박물관
- 서울이대대학교 박물관
- 구 서울공예화단 다산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불사행과 박물관

마을의 기억


마을의 기억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



“청초한 야생화처럼 블루데이지!”

플로리스트 한은신

꽃과 식물을 사랑하고, 늘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플로리스트 한은신, 그녀는 경제적인 보상보다 특별한 날 함께 기억해주고 축하하는 일에 더 보람을 느낀다.



- **청초한 아름다움을 가진 야생화 국화과의 어려해살이 꽃 블루데이지**

블루데이지는 제가 좋아하는 색과 느낌을 가지고 있죠. 꽃집을 개원하면서 어떤 이름을 할까? 궁리해서 지었어요. 꽃과 친해지게 된 것은 10대부터었어요. 20대에 학습지도사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다가 아는 분을 통해 꽃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재미있었고, 전문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한 분에게서 13년간을 배웠어요. 처녀 때, 결혼을 해서, 유모차를 끌고, 꽃집을 열고도 계속 배웠죠. 블루데이지 꽃집을 공동동에서 연지는 9년 되었어요. 저는 원래 남매가 고양인데 딸 다섯인 집에서 넷째 딸로 자랄죠.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성격은 굉장히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조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속으론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죠. 그런데 웬지 돌에 피어있는 야생화가 좋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교련선생님께서 국화를 좋아하셔서 국화제가 있었는데 학급의 꽃 장식, 꽃꽂이를 제가 담당하기도 했죠.
-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해주는 플로리스트**

플로리스트는 꽃을 디자인하고, 판매하는 일을 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하지만 계속 배우고, 연습하고 도전해서 실력을 쌓아야하는 일이에요. 요즘엔 유학을 다녀오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계속 배워야 해요. 또 사람들이 원하는 최신의 트렌드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배우는 일에 게으르면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우리 꽃집에는 자존심이 있어요. 꽃과 식물을 사람들의 삶 속에 연결하는 일이지. 정직하게 좋은 옴을 쓰고, 쉽게 사들지 않고, 오래 두고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이 일은 경제적인 보상 보다 특별한 날을 함께 기억해주고 축하하는 더 큰 보람이 있는 일이지.
- **10년 후 한은신을 소개하는 한 줄** 어디에서도 가늠하지 않는 플로리스트
-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돈, 창의성, 자연을 소재로 한 독특한 디자인 공유
- **죽기 전에 나는 000을 하고 싶다.**

 - ① 유럽으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
 - ② 전원주택을 가지고 예쁜 꽃을 심고, 정원을 가꾸고, 나만의 꽃밭에서 흙 집을 짓고 살고 싶다.
 - ③ 사람들에게 책이 있고, 심터 같은 자연적인 공간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믿고, 초대하고, 관계 맺기

스스로 해야 즐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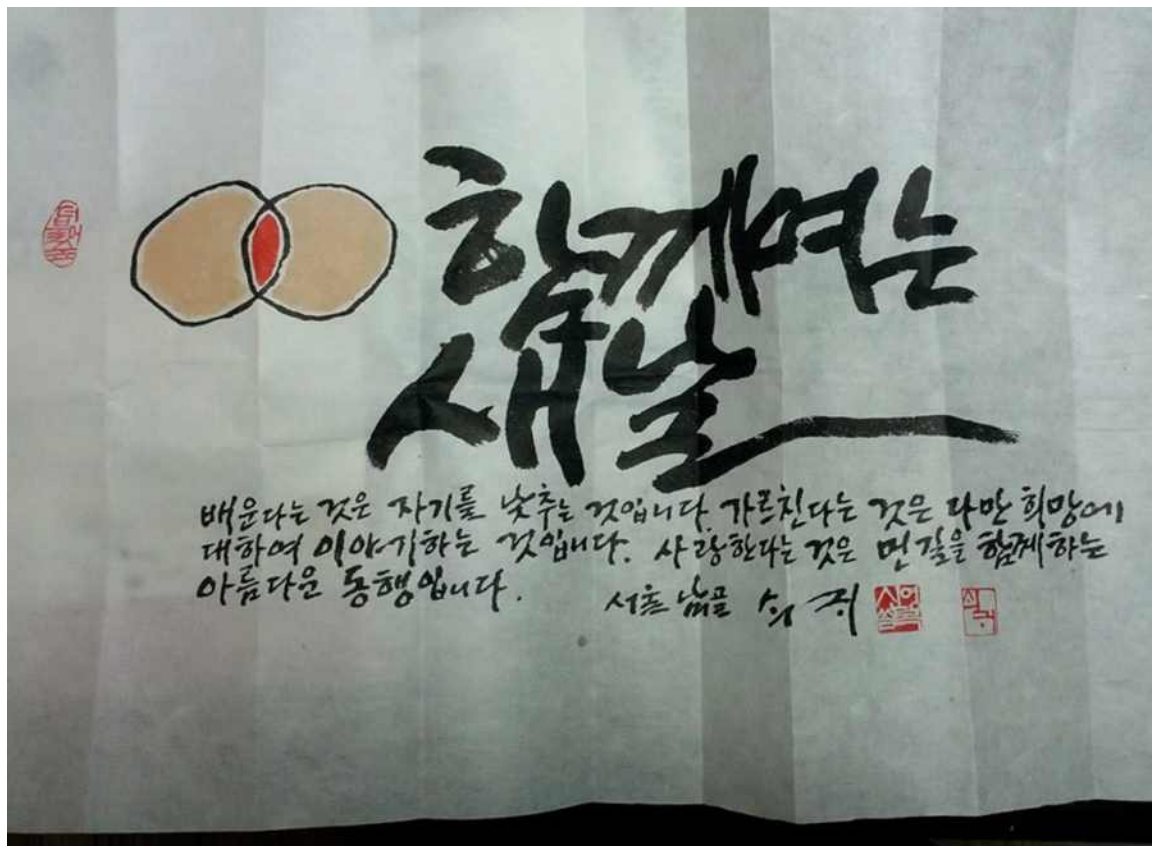
자발성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 마을축제는
마을사람들의 관계, 문화를 만드는 울타리가 낮은 장
- 재미있어야 한다. 감동이 있어야 한다.
- 시기, 장소, 대상을 생각해보자.
- 자주 둘러앉자, 관계의 노동
- 정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 대신해주는 축제, 함께 만드는 축제
- 반 구조화 해보자.(콘셉트 정하고, 참여자들과 완결해가자)
- 무엇을 남길 것인가?
- 기획단을 만들자.
- 사전 준비 모임을 기획하자.
-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자.
- 불편한 사람이 있다.(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재미있지만 어려운 일이다.
- 즐겁기 위해서 고생할 사람이 있다. 고생한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자.
- 잘한 것, 잘된 것 중심으로 평가하고, 아쉬운 것을 찾아보자.



발제 2

주민을 위한 주민의 축제 '정릉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

양지순

협동조합 성북신나

#1.

1970년대 조성된 서울대 교직원들의 집단주택단지 '정릉 교수단지'.

2008년 재개발 이슈와 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법원까지 가서 재개발 진행을 취소한 경험이 있는 마을이다. 마을풍경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주민모임 '정릉마실(구. 정릉을 사랑하는 모임)'의 주민들은 각자의 집 대문에 예쁜 화분들을 내걸고 알맞게 자른 폐목재들로 화단을 만들었다. 주민들은 주택 담장을 따라 소담하게 이어진 화단에 재건축 반대의 메시지를 담아냈다.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마을을 지켜낸 경험이 발단이 되어 문화적 전략의 하나로, 2014년 '정원이 들려주는 소리 - 정릉교수단지 정원페스티벌'이 시작됐다. 매년 5월에 진행되며(18년도에는 무중력지대 성북의 프로그램을 통해 봄과 가을에 축제를 진행했다.) 정릉마실의 주최,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축제이고 올해 7회차를 맞이했다.

매년 봄, 교수단지는 마을을 찾는 사람들과 축제를 만들어나가는 주민들로 시끌벅적하다.



2018년 봄 정원축제



2018년 가을 정원축제



2019년 정원축제

#2.

가파른 언덕과 복잡한 골목으로 길을 헤매었던 작년 7월의 어느 날을 떠올려보니 나의 교수단지 첫 만남은 낯섦의 연속이었다. 서울 속 서울 같지 않은 ‘마을풍경’ 그리고 마을에 대한 애정이 알차게 담긴 PPT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문화적인 재개발 반대의 과정과 그 맥락에서의 정원축제를 설명하시던 정릉마실 김경숙 회장님의 모습. 참 낯설지만 오래 그리웠던 풍경이다.

2018년에 교수단지 거점의 현장 중심 도시재생 프로젝트형 학교 ‘작은도시재생학교’로 축제의 주체인 ‘정릉마실’과 당해 7월부터 11월까지 총 5개월 동안 42명의 청년들과 함께 2018년 가을 정원축제를 준비했다. 정릉마실 사무실의 바로 옆 25평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빙그레다방’을 조성했고 축제기간동안에 카페, 축제이후 전시와 강의 등 마을과 결합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실험했다.

빙그레다방과 13곳의 정원들은 각각이 짜임새 있게 쉽터, 전시장, 식당, 워크숍 룸 등이 되어 축제 방문객들과 만난다.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의 결과물인 그림, 도자기들은 13곳 중 어느 정원에 전시작품이 되고 골목골목을 걷다 배가 출출해진 손님들이 주민들의 개인 화단에서 딴 꽃잎으로 만드는 꽃 비빔밥과 전을 사먹는다. 수익금의 전부는 다시 내년도의 정원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 쓰인다.

민감한 지역이슈를 둘러싼 갈등을 문화적으로 보듬는 정원축제가 민간 지역축제로서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며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일까.

#3.

첫 번째는 활동의 ‘자발성과 일상성’에서 찾을 수 있다.

여타 축제들이 행정적 결정에 높은 의존도를 보이기도 하고 지역에 근거를 두지만, 정착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배제하며 행사성, 전시성 축제로 그치는 모습도 많이 보인다. 반면 민간주도의 교수단지 정원축제는 주민들의 많은 시간과 애정이 들어간다.

주최측인 정릉마실의 사무실은 축제를 위해 일정기간동안 반짝 여는 곳이 아니다. 마을 사랑방처럼 시간이 되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사무실을 지키면 하나 둘 사람이 모인다. 마을 풍경을 지키기 위한 고민을 나누고, 모종삽을 들고 모여 횡한 거리 마다마다에 꽃을 심고 화분을 옮긴다. 정원축제의 풍경이 한 계절로 만들어질리 없다.

축제에서 나아가 풍경보존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도시재생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한 토크쇼와 강의까지 진행한다. 정릉마실의 주민들이 직접 대학교수, 변호사 등을 사전에 섭외하고 회의를 거친다. 이 모든 것은 일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다. 누군가 가르쳐준 것도, 시킨 것도 아닌데 다년간의 활동의 경험 축적으로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존경스럽다.

#4.

두 번째는 축제 ‘목적과 가치의 공유’이다.

물론 각자의 맥락과 욕망을 갖는 주민들이 모여 ‘재개발 반대’라는 사명만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쉬울 리 없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가치인 연대, 협동, 협력이 실제 일을 할 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안다. 늘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잔소리를 하며 일을 끌고 가는 사람, 무임승차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눈치 보며 역할을 하는 몇몇으로 협력이라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공이 많은 일, 사공이 많아야 하는 일은 ‘우리의 일, 마을의 일’이 아닌 ‘나의 일’로 생각할 때야 배가 산으로 가지 않는다.

주민들은 일상 프로그램 또는 주민들과의 모임을 통해 부지런히 함께 만들어 나갈 실험들 그 너머 보이는 축제 풍경을 그린다. 함께하는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여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과정의 결과로 축제에 지속적인 개최의 여지를 만들어냈다. 기획단계의 주민참여는 물론 축제기간 동안 주민들이 축제의 가치를 이해하고 즐기는 자세는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매회 거듭할수록 지금 이대로의 모습, 함께 나누는 풍경 그대로 정릉 교수단지가 있어주길 바라는 바람을 함께 키운다.

#5.

‘정릉마실’ 그리고 ‘교수단지’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기 위한 활동 첫 시작으로 작년 ‘작은도시재생학교’에서 정릉마실 주민들과 축제를 운영했다. 올해는 축제기간 동안 빙그레 다방에서 한 잔에 1,500원인 미숫가루 등의 음료를 판매하고 빙그레 다방 한 칸에 마을 기록물들을 전시하기도 했는데, 나름의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적자, 웃꿨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로 ‘빙그레 다방’은 잠시 사무공간으로 두게 됐다. 새벽운동으로 정릉을 향하는 유동인구가 많아, 몇몇의 주민들은 아침 7시부터 카페를 운영했으면 조금은 나았을 것이라 하시며 못내 아쉬워하셨다. 모두 아침잠이 많은 탓에 시도를 고민했지만 지속할 자신이 없었다.

빙그레 다방에서 나아가 공간기반의 일상문화 실험을 위해 올해 여름, 빙그레 다방의 버전2 마을부역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정릉역에서 도보 2분, 아리랑시장에 자리한 5평 남짓의 자그마한 공간.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고 페인트칠을 하고 가구를 들이며 5인의 청년들과 마을 부역을 만들었다. 월 평균 40회 대관으로 공간 재투자가 가능할 정도의 수익을 내는 선전을 보이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재와 과거가 잘 맞닿아있는 교수단지의 아름다움에 빠진 활동가들이 아카이빙을 진행해 책 출판, 전시와 마을여행을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했다. 주민을 위해 주민이 만든 정원축제가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하고 저절로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그때에 훌쩍 빠져버린 우리도 교수단지 속 나의 공간, 일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마을의 이곳저곳 비어있고 놀고 있는 빈틈을 찾는다.

지역축제 잘됐으면 합니다

☐ 토론- 축제토크쇼

- 1) 정릉버들잎축제
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MP
- 2) 정릉더하기축제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 3) 성북생활문화주간
전지욱 성북구 생활예술매개자
- 4) 장위별별걸다해
박종원 개구장위들
- 5)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이민영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무국장

토론 1

정릉버들잎축제

- 축제의 시민참여의 시작과 지역연대, 그리고 가치와 의미

김진경
정릉버들잎축제 MP

정릉버들잎축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정릉버들잎축제에 어떻게 주민과 함께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어떻게 지역과 자연스런 연계가 됐는지를 오래전 이야기를 하려 한다.

2014년 정릉2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인 민요반과 한국무용반이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출전하기로 하기로 한다. 하지만 단순히 무용과 민요만으로 출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당시 성북구 마을예술창작소인 우리동네아뜰리에(WooA)는 지역과 연계된 축제 및 공연을 주민참여와 예술가의 협업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 정릉을 소재로 뮤지컬을 제작해보자는 제안은 너무나 흥미 있는 프로젝트였다. WooA의 시니어연극반과 새롭게 뽑은 정릉의 연극반 그리고 민요반 한국무용반 해서 약 30여명의 시민 공연팀이 완성되었고 지역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스토리 발굴과 예술교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참여와 예술가들의 참여 그리고 관의 협업이 이루어졌고 그렇게 탄생된 정릉뮤지컬 버들잎 사랑이야기가 완성이 되었다. 창작하는 과정은 자연스럽게 지역과의 연대가 이루어졌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갈등도 많았고 문제도 많았지만 해결해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교훈과 성취감을 주었다. 이런 과정을 겪고 완성된 작품이라 그런지 전국 대상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정릉의 이야기 버들잎 사랑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축제와 연계 될 수 있었다.

2014 전국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대상 수상



동축제의 변화 과정과 가능성

시민참여로 시작된 뮤지컬 공연은 정릉예술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연결되었고 이후 더 많은 참여자들이 정릉의 뮤지컬을 이어서 발전 시켰으며 이렇게 제작된 공연은 지역의 축제 및 정릉의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다.

- 지역의 축제와 연계된 버들잎 사랑이야기 약력 -

- 2014.10. <정릉 詩 낭독콘서트> '버들잎 사랑이야기' 공연 (흥천사)
- 2014.10. <제7회 전국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버들잎 사랑이야기' 공연, 대상 수상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014.10. <성북구 자치센터 경연대회> 특별 공연 (성북구민여성회관)
- 2014.10. <정릉 버들잎 축제> 특별 공연 (고려대학교부속고등학교)
- 2015.01. <2015년 성북구 신년인사> 특별 공연 (성북구민여성회관)
- 2015.10 <정릉 버들잎 축제> '버들잎 사랑이야기' 공연
- 2015.11 <정릉예술마을만들기> '버들잎 사랑이야기' 공연
- 2016.10/2017.10/2018.10/2019.10 <정릉 버들잎 축제> '버들잎 사랑이야기' 공연

2014년 이후 정릉축제는 버들잎사랑이야기 정릉 뮤지컬을 지금까지 이어가며 축제공연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시민 참여와 동축제로써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존의 축제 형식의 문제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고 바꿔보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기존의 축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중심으로 축제를 준비하였고 학교 운동장에서 먹거리와 공연이라는 큰 틀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의 단점은 학교 안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축제는 참여자들만 참여하게 되고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정릉축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폐쇄적인 장소라는 단점이 있었다. 장점은 넓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대 설치 및 진행이 수월하다는 점이 있다. 이런 장점을 위해 지역에서 소외되는 축제를 할 것인가 교통과 장소가 협소해도 지역민들이 참여가 수월한 장소를 택하여 동축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 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2014 버들잎 축제 공연(송덕초등학교)

2016년부터 정릉 축제의 MP를 맡고 있는 본인은 학교 밖으로 나와 거리에서 진행하자는 주장을 하였고 축제추진위원회 및 각 동 대표님들 의원님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찬반의 문제를 놓고 결국 2016년부터 새롭게 정릉의 개울섬으로 장소를 옮겼고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서 무대도 축소되어야 했고 관객석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 할 수 없었다. 장소의 변화는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회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축제들이 광장중심의 축제들을 해왔다면 정릉의 축제는 지리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방법을 고민해야 했고 기존의 방식을 존중하는 개울섬의 공연과 시민참여 및 예술가 참여가 자유로운 교통

광장의 버스킹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다. 2016~2018년까지 개울섬에서 진행했고 2019년에는 정릉시장 주민참여마당에서 메인 축제를 진행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도 정릉 지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한곳에 모여 축제를 하는 형식은 어려운 상황이고 장소에 대한 고민과 어떤 방식의 축제가 정릉에 맞을 것인가는 계속해서 고민하고 수정하고 실행해 오고 있다. 절대 바뀔 수 없었을 것 같던 어가행렬의 코스라던가 형식도 조금씩 수정되어 오고 왕과 왕비의 버들잎 퍼포먼스,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 등 교통광장에서는 자유로운 공연 형식과 시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정릉예술마을만들기, 정릉예술마을 만들기 축제 기획단, 개울장 등 지역 단체가 참여했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릉에서 더 재미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구성된 주민모임인 “정릉축제재밋당“ 팀들이 참여하여 교통광장의 축제를 채우고 있다. 정릉의 버들잎 축제는 동축제로써 어떻게 가야하는가를 조금씩 고민하고 조금씩 수정 보완하여 진행하는 만큼 앞으로 시간이 흘러 지역에 필요한 지역의 축제로 조금씩 성장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진다.



2018년 버들잎 축제 교통광장



2019년 버들잎 축제 교통광장

축제가 매개가 되어 맺어지는 공동체 - 정릉더하기축제의 과정과 전망

홍봉기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지역조직팀장

1. 환대와 감동 없는 마을 사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2. 속의의 과정은 공동체의 기본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3. 마을은 우리의 완충지가 되어야 합니다.
4. 축제를 통한 성공의 경험들을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1) 더하기 축제 과정

위의 내용들을 실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의 관점을 같이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축제를 설계하였고, 축제를 매개로 유관단체들을 설득하고, 주민들도 만나 설득하는 과정들을 겪으며 정릉의 축제인 '더하기 축제'는 성장해 나갔습니다.

보통의 축제에서는 핵심요소로 '유희성'과 '체험' 부가요인으로 '환대'를 뽑습니다. 하지만 정릉의 축제는 부가요인인 '환대'가 메인입니다. 그래서 정릉의 축제는 시작부터가 달랐습니다.

지역의 문화는 곧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인식변화의 결과물입니다.

지역축제는 이러한 지역의 문화를 창조하는 매개으로써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축제를 만들어 지역단체 유관기관과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일, 그 보다 그들에게 묻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 더 나아가 그들이 목소리를 내어 의견을 내고 한기관의 일이 아닌 모두의 일이 되어 적극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축제라는 매개를 통해 주민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지역 안에서 주민 스스로 만들고 해결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매주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인원도 1년차에는 10명 내외였고, 2년차에는 10명~15명일 때가 많았습니다. 3년차에는 많을 때는 30명 적게는 20명 이상이 꾸준히 참석했고 우리는 그렇게 매 주 만났습니다.

회의방식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존중되고 합의 되는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숙의’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숙의’방식은 1~2년차를 통해 축제의 방향성이 같아지고 축제에 대한 경험들이 쌓이는 과정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까지 바꿀 수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3년차 축제 준비기간에는 ‘숙의’ 과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축제를 통해 지역 내 복지,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에 자주성 있는 공동체를 양성함으로써 분야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생하여 지역 안에서 그 네트워크들이 긍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기 전 더하기축제는 지역의 축제를 표방했지만 결국 정릉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준비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축제는 사실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경험한 이들과만 참여하는 축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룬 ‘정릉축제재밋당’이라는 단체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참여하는 인원도 자연스럽게 불특정 다수의 지역의 주민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명실상부한 지역축제가 된 것입니다.

2) 더하기 축제 전망

꾸준할 수 있는 힘이 ‘혁신’이라 생각하고 축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꾸준히 만났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같은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참여한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유수의 기관들이 혁신사례를 무수히 벤치마킹하고 있지만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외형만 모방할 뿐, 혁신 문화에 대한 성찰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축제를 벤치마킹하고자 많은 기관들이 지역을 방문하고 축제에 대해 묻고 돌아가고는 합

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더하기 축제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겪어왔던 고민점, 그리고 진행했던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축제를 공동체의 매개로 생각하고 ‘정릉축제재밋당’이라는 이름으로 ‘인문학과정’을 개설해 여러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험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관 간판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주체성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 생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끝까지 놓지 못했던 복지관이 주최라는 타이틀은 늘 주민들과 지키지 못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가 혁신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경직된 문화는 혁신의 내용보다, 혁신 주체의 간판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창출된 혁신도 쉽게 묻히고, 자연스레 혁신 창출 또한 더 요원해지게 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에 3년 동안 동료들과 정말 열심히 축제를 준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들, 그리고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성공적으로 축제를 진행했던 노력은 기관의 변화, 기관장의 변화를 이끌었고 결국 주최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공동주최로 축제를 개최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주민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고 주최가 되는 혁신 창출을 위해 축제를 매개로 한 3년간의 모두의 활동들은 지역의 우정과 환대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놓았다면 함께한 호스트들의 혁신을 수용하는 정릉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 우정과 환대가 넘치는 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창출 만큼이나 수용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혁신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릉의 축제는 이제 소속감으로써의 신뢰의 관계를 넘어서 서로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타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확산의 단계에 접어든 순환과정에 접어들었다 생각합니다.

확산단계에서 보다 안정적인 통합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희일비하며 편을 나누어 싸우기 위한 갈등이 아닌 경청하고 숙의하고 용기를 내 수정할 수 있는 생산적 갈등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북생활문화주간 - 공간보다 공간 운영자와 관계 맺기

전지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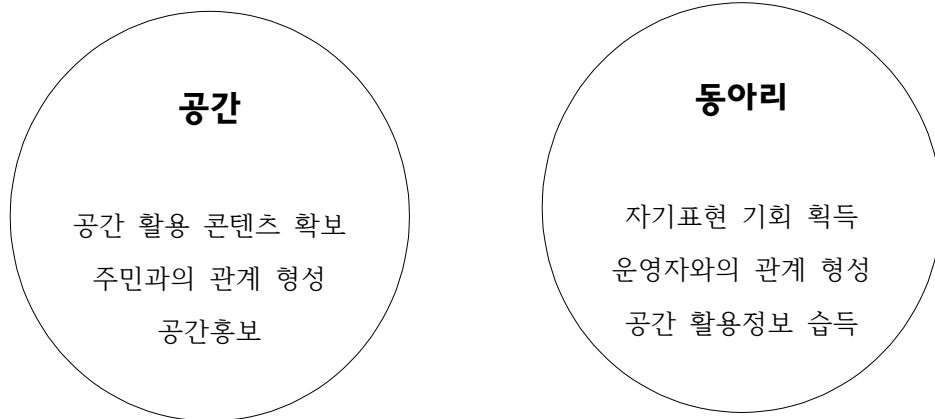
성북구 생활예술매개자

들어가며

<성북생활문화주간>은 서울문화재단 생활문화 거버넌스25 사업의 목적으로 2016년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생활문화주간>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한 동아리 축제이다.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성북구 생활예술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전시, 공연, 네트워킹 등의 생활문화 확산과 시민의 행복증진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예산 사용방침에서 축제, 전시, 공연의 형태로밖에 풀어낼 수 없는 사업이라 난항이 많았지만, 지역 안에서 지역 만에 방법으로 해결해가고자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했다. 여러 가지 사업결과물 중에서 이번 포럼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축제라는 맥락으로 풀어내고자 한다.

축제가 끝나고 난 뒤

이번 축제는 성북의 다양한 공간들과 다양한 생활예술 동아리를 연결하는 작업이었다. 마치고 난 뒤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보는다면 아래와 같다.



물론 이외에 여러 가지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필자가 주목하는 지점은 관계 형성이다. 좋은 관계 형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 행위이며, 문화기획자, 마을활동가들에게는 통일보다 더 큰 염원이 될 것이다. 지역의 좋은 인간관계는 살만한 도시, 행복증진, 삶의 질 개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점이 많다. 이번 축제에서 필자가 발견한 가치는 공간과 주민들을 소개하고 관계 맺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간 운영자와 관계 맺기

좋은 축제를 위한 지역과의 관계 맺기의 시작은 공간과 공간 운영자를 분리하여 바라보는 그것으로 생각한다. 공간과 공간 운영자의 고민은 같을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를 수 있으며 연대 욕구 또한 공간과 공간 운영자의 의지가 다를 수 있다. 공간이 원하는 콘텐츠와 공간의 가치를 더 잘 발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다룰 수 있다. 이것은 공간 운영자의 몫이다.

좀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보자면 공간 운영자들을 만나 그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와 즐거움을 위해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단언한다. 공간은 사람이 운영하고, 좋은 사람은 공간을 좋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공간 운영자는 정말 다양하다. 동네 커피숍 주인, 주민센터 문화예술 프로

그램을 운영하는 주무관, 대학 강당과 콘서트홀을 관리하는 행정담당자,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자, 민간문화공간 운영자, 독립서점 주인 등 지역에서 공간을 가지고 운영하는 모든 이들이 공간 운영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나가며

지역축제의 지속성과 지역과의 연대를 고려한다면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가치와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에게 그 가능성을 시사하고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다면 전형적 축제를 답습하는 불상사는 막을 수 있으며 지속 가능한 그 무엇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장위별별걸다해 - 비록 주민들이 ‘개구장위들’을 모르더라도... 축제는 계속되어야 한다

박종원
개구장위들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서 2년. ‘개구장위들’의 구성원이자 1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일종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장위동에서 크고 작은 축제를 기획·실행하며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2017년 3월 장위2동의 부마축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개구장위들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당시 성북문화재단과 극단, 동덕여대 지역연계전공 학생들이 모여 부마축제를 준비하고 있었고, 도시재생사업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필요했던 장위도시재생지원센터가 모여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목표와 방향성

첫 해에는 ‘부마축제’와 ‘개구장위축제’라는 큰 목표와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히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끝나고 해가 넘어가자 공통의 목표와 방향성은 사라졌고, 결국 모임은 흐지부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커뮤니티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부터 다시 시작 됐습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커뮤니티들이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민과 관, 무엇보다 주민들이 함께 하고 있는 지역의 축제에는 항상 변수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로서지 않으면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지역 '장위동'

성북구에는 너무나 다양한 축제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더 많고, 전국적으로는 더욱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장위동은 아직 문화예술 소외지역입니다. 제가 처음 지역에서 축제를 기획할 때만 해도 주민들이 문화예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단지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이 없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가 이어지자 외부로 나갔던 주민들은 이제 지역에서 함께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작고도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지역에서 축제를 하면서 가장 보람될 때는 주민들이 즐겁게 축제를 즐길 때입니다. 치열한 고민들과 반복되는 준비과정, 항상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우리들의 물음에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답할 때. 우리 모두는 지역 축제를 통해 새로운 추억과 가치들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우리...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지역의 축제가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쓴 소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축제의 '지속성'입니다. 이는 많은 지역에서 겪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공공의 지원을 받는 축제들은 해마다 예산과 방향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년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주민들이 지역 축제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일관적이고 꾸준하게 지역의 축제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핵심 구성원들의 지속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의 축제는 마음과 손발이 맞는 핵심 구성원들이 있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개구장위들도 이러한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조차도 말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황이 바뀌어서 그 사람이 변해보이는 것 뿐이죠.

공공의 진짜 협치, 그리고 주민들의 관심

다음은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입니다. 최근 공공에서는 ‘협치’가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년 동안 공공의 영역에서 일을 하면서도, 특히 올해에는 민간에 나와서 일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보고 겪었습니다. 예산과 권한을 가진 공공에서는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진짜 협치를 해줬으면 합니다. 민간에서 활동하는 저희들은 제법 잘 모여서 협력하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지역의 축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멋진 것들을 많이 준비해도 주민들이 없으면 불가능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한다면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 모든 주민들이 우리들을 아는 그 날까지.

축제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비록 주민들이 아직 우리를 모를지라도...

2019년 10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 6시

삼길레공원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319-2

별의별 잡화점
 주민 물리마켓/아름 마켓/재향마켓
 * 장위동합시외역지간의 나인마켓과 함께 합니다.

별의별 거리연극
 삼복의 이야기 by 가리해숲장작집단 숲작소 365
 자매지해지곡 by 한자집단 나디워서 아틀랑다

가을운동회 with 개구장위를
 장위동 물놀이/수상 경기/개구장위를 이겨라

장위인터뷰
 장위동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 이벤트

예술로 사부작사부작
 수공예 예술 재능 워크숍

머린이 <오감 예술놀이터>
 머린이 예술 놀이 프로그램 진행

장위협협 주민 참여 예술제 마켓

장위동 협치사업단? 장위동에서 개최되는 주민참여형 문화사업으로 장위동 문화기획 팀인 내인 <개구장위를>이 진행합니다.
 * 후원단: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주최 | (사)장위동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 후원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위원회

미아리고개마을장터 고개장

이민영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사무국장

미아리고개 마을장터 고개장은 ‘미인도’를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시범 프로그램이다. 처음엔 마을의 작은 축제를 상상하며 시작되어 지금은 마을장터이면서, 아이들이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뛰어노는 놀이터이자, 동네 사람들의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개장을 운영하는 ‘아름다운 미아리고개 친구들’(아미고)에게 고개장은 이제 월 1회 진행되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아미고라는 단체가 호흡하며 살아있게 만드는 존재다. 이런 고개장을 지속할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미인도

보통 매년 5월 첫 고개장에는 사람이 매우 적는데, 2018년 5월 너무나도 쌀렁한 고개장 풍경에 충격을 받아 다음 달 아리랑광장에서 고개장을 시도해 보았다. 결과는 이용객 수 세배 증가와 너무 좋다는 호평 대잔치였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장터 고개장을 열었다기 보다 외부행사를 하고 온 듯한 허무함을 느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사람들은 고개장 콘텐츠를 좋아한다는 것과, 고개장은 미인도라는 장소성이 중요하다는 것, 두 가지를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고개장은 미아리고개에서 펼쳐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고개장은 미인도에서 열기로 결정했다.

2018년 6월 이후 고개장은 미아리고개에 안착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함께 노는 행위들의 총칭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미인도는 미아리고개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집

이다. 장터나 축제를 하기에 좋은 장소는 아니지만, 미인도는 우리의 노력과 고생이 휘발되지 않고 쌓여간다는 안정감을 주기에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아미고

뻘한 말이지만, 모든 일은 혼자서는 할 수 없다. 특히 행사는 준비하는 사람들의 힘을 가장 잘 실감할 수 있다. 고개장을 준비하며 골목홍보를 하고 셀러들에게 나눠줄 안내문을 포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혼자서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잘한 일부터 함께 준비하는 아미고 구성원들이 있기에 고개장은 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개장 철수 시에 가장 돋보인다. 업무를 나누지 않아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한 시간 반이 지나면 모든 정리가 끝나 있다. 이제 아미고는 손발이 맞는 것을 넘어 한 몸처럼 움직이는 관계가 되었다. 이런 관계가 되기까지 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축제가, 장터가 안정성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람은 마음만으로 살 수 없다. 아미고는 고개장을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적게라도 노동의 대가를 주기 위해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함께 놀기 위해 서로의 삶을 걱정하며 이제는 서로의 미래까지 설계해주며 제안하는 사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생판 남들이 모인 아미고는 이제는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4살 고개장을 키우고 있다.

이웃들

앞서 고개장 지속 가능의 요소는 미인도와 아미고라고 말했는데, 사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불안정하다. 미인도의 천장은 북부로도사업소, 바닥면은 성북구청 관할이다. 운영은 성북문화재단이 위탁받아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아미고의 또 다른 이름)이 공동운영 하고 있다. 미인도를 이루는 기둥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너지기 마련이다. 또한 아미고도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을 강제성이 전혀 없다. 그렇기에 고개장은 항상 불안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함을 함께 지탱해주는 이웃들, 네트워크가 있어 불안감에 압사당하지 않을 수 있다. 미인도를 함께 만들고 존속을 신경 쓰며, 아미고 구성원들의 인건비를 함께 고민하는 공유성북원탁회의, 성북문화재단 그리고 다른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고개장을 지속할 수 있는 이유다.

고민과 가능성

고개장은 단순히 수익이 나는 물건을 사고파는 장터가 아니다. 미아리고개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대학생, 활동가, 기획자들이 모여 아미고를 이루고 문화예술로 일하고 놀며 마을의 일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현장이다. 고개장은 돈으로만 환산되는 값어치가 아닌

일상에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는 지역문화활동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한다.

고개장은 지원금으로 운영되기에 지원금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다. 참가비를 받아도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고 그렇게 운영하고 싶지 않다. 얼마의 돈으로 자리를 팔기 시작하면 그 돈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고개장 활동을 돈으로 환산하기 시작할 것이다. 때문에 크라우드펀딩 시도, 어린이 목공워크숍, 굿즈 개발 등을 시도하며 자체 수익모델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9월 진행되었던 크라우드펀딩은 많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150%를 달성하고, 10월 마지막 고개장에서 몇몇 셀러들은 후원금을 내고 싶다며 수익의 일부를 후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건의를 해왔다. 무엇보다도 돈을 벌기보다 고개장에서 동네친구들을 만들며 함께 하는 것이 재미있어 참여한다는 셀러들의 변화된 모습에서 고개장의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